

영유아교사의 자아강도,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 Teachers' Ego-strength and Self-efficacy on Problem Solving

김경희*, 박수영**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Kyung-Hee Kim(rosa@mokpo.ac.kr)*, Su-Young Park(sy5622@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자아강도,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K시와 J지역에 재직하고 있는 영유아교사 293명이다. 연구도구는 자아강도 척도와 자기효능감 척도, 문제해결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t검증,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 회귀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교사의 자아강도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문제해결력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문제해결력에 자아강도와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영유아교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에 따라 문제해결과 대처능력의 차이를 보이며 자아를 통합하는 자아강도에 중요한 요소로 자기효능감과도 연관이 있다. 자신의 심리적인 갈등과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교사는 영유아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돌보고 지도하기에 미흡하므로 긍정적인 자기상(self-image)을 형성하여 문제해결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아성장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중심어 : | 자아강도 | 자기효능감 | 문제해결력 |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verify early child teachers' ego-strength and self-efficacy that effect to problem solving. The subjects are included 293 in-service teachers in K city and J province. The research tools are ego-strength scale, self-efficacy scale and problem-solving scale. The data is disposed of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ego-strength,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that have a correlation, in addition, variable to effect to self-strength and self-efficacy as solving problems. Therefore, early child teachers are able to own psychological conflict and anxiety which can be disturbing in teaching young children in warm and comfortable ways. It is required to develop a self-growth program to increase ego-strength,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 keyword : | Ego-strength | Self-efficacy | Problem Solving |

I. 서론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는 자아가 건강해야 한다. 최근 유아교육기관 선정 시 고려한 점을 묻는 질문에 과반수

가 약간 못 미치는 41.8%의 응답자가 원장 및 교사의 자질을 꼽았다. 다음으로 집과의 거리, 주위의 평판, 시설 등 그 뒤를 이었다. 환경이나 프로그램을 본다는 응답자는 6.4%로 비교적 낮았다. 또한 응답자가 낮은 연

접수일자 : 2015년 08월 24일

수정일자 : 2015년 10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0월 15일

교신저자 : 박수영, e-mail : sy5622@naver.com

령 일수록 환경이나 프로그램보다 교사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전문가의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23].

자아강도(Ego-strength)란 당면하고 있는 현실관계에서 그 개인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아 기능과 관련하여 정의하거나 성격통합의 능력, 자아기능의 효율성, 스트레스 상에서 자아의 붕괴를 막고 자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자아기능 영역에서의 자아 수행의 적절성 및 효율성, 특히 자아의 통합 기능의 정도 혹은 자아가 적응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21]을 가리킨다. Marie Jahoda는 자아정체감, 자아실현, 통합력, 자율성 등과 Carroll은 자기존중과 타인존중의 자세, 자신과 타인이 지닌 장점과 한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 등 자아실현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강조했다[24]. 자아강도가 낮을 경우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지 못하며,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11]. 교사는 영유아에게 모델링이 되기 위해 자기성숙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하며[11]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개인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즉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통제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22]. 이 믿음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설정 등 실질적 행동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 자기효능감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서 갖게 되는 일반화된 기대를 의미한다[9]. 자기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다양한 성공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며, 자기효능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경험, 불안이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12].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업무수행에 불안감을 느끼고, 부정적 영향과 자기위주적 성향을 보인다 [3]. 또한, 자기효능감은 반복된 관련적 과제 경험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제를 제공해주고 도전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면 자기효능감은 발달된다[2].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과제에 대한 집중과 지속성, 성취 수준,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상(self-image)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성공 시나리오를 긍정적으로 시각화하고 보다 좋은 문제해결 방안을 시연한다고 한다. 반면 낮은 자기효능감은 실패 시나리오를 시각화하는 경향이 있고, 매사 부정적인 시각으로 잘못될 거라는 식의 비효능적인 사고를 한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과제해결에 더 끈기가 있다[20].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 방식보다는 문제 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5]. 자기효능감은 삶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8] 직무만족도와 성취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삶 전반에서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의 감정 상태와 현재의 행복,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 자신과 타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다[25].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적절히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 선택 및 조직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15]. 문제해결력은 주어진 상황을 탐색하고 이해한 후 체계적 단계를 따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다 많은 수의 대안들을 파생할 수 있는 능력, 이들 대안들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여 긍정적 결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문제해결 상황이란 상황에 당면한 개인에게 즉각적으로 사용가능한 효과적인 반응대안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18]. 어떤 상황은 처음 당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하거나 모호해서, 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상반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 문제 상황에 비효과적으로 대처할 경우 그에 따른 사회적, 개인적 결과에 따름은 물론 심리치료를 요하는 정서장애나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심리적응과 연관 짓는 연구자들은 인간을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 보고, 심리적 적응이 문제해결의 숙달 정도와 관련된다고 하였다[18]. 또한 문제해결 기술이 사회적 유능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이나

정신건강의 핵심요소이다. 이는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이 필요하고, 심리적 적응이 이루어질 때 문제해결이 보다 효과적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중요시 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지 자원들을 높게 지각하고 문제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체한다고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난다[14]. 이는 개인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해 자기효능감이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17]. 영유아교사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에 따라 문제의 해결능력의 차이를 보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처능력을 갖추는 것은 자아강도에 중요한 요소이며, 자기효능감과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교사는 전문성과 더불어 교사의 자질이 더욱 필요하다. 교사는 유아의 사회적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교수법을 개발해야 하며,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 및 행동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변화하는 보육 과정 및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고, 평가인증제 도입으로 교사들은 긴장과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고,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 등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직율도 높아 우수한 영유아교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6]. 특히 자신의 심리적인 갈등과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영유아교사는 아이들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돌보고 지도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문제해결능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자아강도,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교사의 자아강도,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영유아교사의 자아강도,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2주에 걸쳐 K시와 J지역의 유아교육기관 39개 기관을 임의표집하여 연구대상을 293명으로 선정하였다. 영유아교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교사 2명(0.7%), 여교사 291명(99.3%)로 여교사가 대부분이었고, 연령은 21~30세가 85명(29.0%), 31~40세가 96명(32.8%), 41세 이상이 112명(38.2%)으로 41세 이상 교사가 가장 많았다. 경력은 3년 이하가 100명(34.1%), 4년 이상~6년 이하가 86명(29.4%), 7년 이상~10년 이하가 62명(21.2%), 11년 이상이 45명(15.4%) 순이었고 3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93명(31.7%), 기혼이 200명(68.3%)으로 기혼이 더 많았다.

2. 연구도구

2.1 자아강도 척도

본 연구에서 자아강도 척도는 Barron의 자아강도[10]를 한국판 MMPI에서 48문항을 추출하여 타당화하였고 이것을 신행우와 김재환(1992)이 표준화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13]. 자아강도 척도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행우와 김재환(1992)의 연구[13]에서도 MMPI 재표준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 결과, 성격통합의 능력 등, 자아의 붕괴를 막고 자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자아의 통합 기능의 정도 혹은 자아가 적응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자아강도는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14문항), 정서적 안정감(6문항), 신체적 안정감(6문항), 이성적인 자극 추구(3문항), 공포의 부재(3문항), 새로운 자극 추구하고 안정감(5문항), 유약함과 부인(5문항), 비종교적 태도(3문항), Cronbach α .81, 기타(4문항)의 9개 요인구조를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1로 나타났다.

2.2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schannen-Moran(2000)이 개발한 OSTES: Ohio state Teacher Efficacy

Scale는 김유정(2004)이 사용한 교사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4]. 자기효능감 척도는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들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조금 그렇지 않다), 3점(조금 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이며 자기효능감은 최소 10점에서 최대 40점까지 분포를 보이게 되며 점수가 클수록 높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86으로 나타났다.

2.3 문제해결능력 척도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해 Lee(1978)가 개발하고 우옥희(2000)가 수정·보완한 문제해결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문제의 발견(5문항), 문제의 정의(5문항), 문제의 해결책 고안(5문항), 문제의 해결책 실행(5문항) 및 문제 해결의 검토(5문항)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거의 언제나'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범위는 25~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 .85이었다[15][19].

3.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2주에 걸쳐 K지역과 J지역의 유아교육기관 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330부를 배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310부이다. 이 중 무성의하거나 오류가 많은 응답 자료를 제외하여 293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 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설문지를 작성하고 본 연구자가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포한 후 다시 수거해 오는 방법을 취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WINDOWS 18.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과 연구도구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 산출하였으며 변인간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력간의 관계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력간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자아강도와 문제해결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강도 전체점수는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발견($r=.186, p<.01$)과 문제해결의 검토($r=.162,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아강도의 하위요인인 '중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은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발견($r=.174, p<.01$)과 문제해결의 검토($r=.156,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아강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안녕감'은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발견($r=.175, p<.01$)이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아강도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안녕감'은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발견($r=.117, p<.05$)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문제 해결책 실행($r=.14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아강도의 하위요인인 '이성적인 자극의 추구'는 문제해결력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강도의 하위요인인 '공포의 부재'는 문제해결력 전체점수($r=.194, p<.01$),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발견($r=.219, p<.01$), 문제의 정의($r=.125, p<.05$), 문제의 해결책 고안($r=.117, p<.05$), 문제해결의 검토($r=.264,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아강도의 하위요인인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은 문제해결력 전체점수($r=.153, p<.01$),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발견($r=.198, p<.01$), 문제의 해결책 고안($r=.132, p<.05$), 문제해결의 검토($r=.136,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아강도의 하위요인인 '유약함과 부인'은 문제해결의 검토($r=.128,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자아강도는 문제해결력과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정의 ($r=.203, p<.01$), 문제의 해결책 고안($r=.413, p<.01$), 문제해결책 실행($r=.438, p<.01$), 문제해결의 검토($r=.146, p<.05$)에서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력과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과 자아강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

기효능감은 자아강도 전체점수($r=.201, p<.01$)와 자아강도의 하위요인인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r=.216, p<.01$)과 '정서적 안녕감'($r=.171, p<.01$), '신체적 안녕감'($r=.161, p<.01$), '이성적인 자극의 추구'($r=.202, p<.01$), '공포의 부재'($r=.141, p<.05$), '기타'($r=.158, p<.01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은 자아강도와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1. 자아강도,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력간의 상관관계

	자아강도										문제해결력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	정서적 안녕감	신체적 안녕감	이성적인 자극의 추구	공포의 부재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	유약함과 부인	비종교적 태도	기타	자아강도전체	자기효능감	문제의 발견	문제의 정의	문제의 해결책 고안	문제 해결책 실행	문제 해결의 검토	문제해결력 전체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	1																
정서적 안녕감	.529 (**)	1															
신체적 안녕감	.618 (**)	.484 (**)	1														
이성적인 자극의 추구	.331 (**)	.353 (**)	.268 (**)	1													
공포의 부재	.484 (**)	.355 (**)	.420 (**)	.209 (**)	1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	.474 (**)	.436 (**)	.398 (**)	.276 (**)	.199 (**)	1											
유약함과 부인	.359 (**)	.346 (**)	.261 (**)	.126 (*)	.365 (**)	.231 (**)	1										
비종교적 태도	.266 (**)	.151 (**)	.157 (**)	.172 (**)	.195 (**)	.096	.330 (**)	1									
기타	.477 (**)	.416 (**)	.464 (**)	.233 (**)	.329 (**)	.280 (**)	.304 (**)	.249 (**)	1								
자아강도전체	.773 (**)	.713 (**)	.709 (**)	.529 (**)	.654 (**)	.574 (**)	.591 (**)	.472 (**)	.658 (**)	1							
자기효능감	.216 (**)	.171 (**)	.161 (**)	.202 (**)	.141 (*)	.023	.093	.017	.158 (**)	.201 (**)	1						
문제의 발견	.174 (**)	.175 (**)	.117 (*)	.050	.219 (**)	.198 (**)	.091	.030	.105	.186 (**)	.056	1					
문제의 정의	.068	.011	.020	.083	.125 (*)	.038	.019	.063	.034	.035	.203 (**)	.577 (**)	1				
문제의 해결책 고안	.032	.056	.054	.105	.117 (*)	.132 (*)	.093	.046	.053	.020	.413 (**)	.527 (**)	.517 (**)	1			
문제 해결책 실행	.058	.073	.142 (*)	.097	.046	.102	.017	.045	.065	.024	.438 (**)	.385 (**)	.583 (**)	.555 (**)	1		
문제 해결의 검토	.156 (**)	.043	.061	.042	.264 (**)	.136 (*)	.128 (*)	.077	.083	.162 (**)	.146 (*)	.602 (**)	.543 (**)	.591 (**)	.517 (**)	1	
문제해결력 전체	.106	.018	.011	.095	.194 (**)	.153 (**)	.080	.066	.025	.095	.320 (**)	.772 (**)	.801 (**)	.806 (**)	.770 (**)	.824 (**)	1

* $p<.05$, ** $p<.01$

2.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강도와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해결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자아강도,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B	β	t	R ²	F
(상수)	3.748		11.376***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	-.368	-.140	-1.743		
정서적 안녕감	.065	.038	.552		
신체적 안녕감	.281	.163	2.257		
자아강도	.185	.114	1.921		
공포의 부재	-.340	-.245	-3.842***	.206	7.316***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	-.303	-.157	-2.462*		
유약함과 부인	-.001	-.001	-.011		
비종교적 태도	-.003	-.002	-.028		
기타	-.017	-.011	-.182		
자기효능감 전체	.441	.333	5.968***		

* p<.05, *** p<.001

[표 2]와 같이 자아강도가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강도의 하위요인 중 '공포의 부재'(t=-3.842)가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t=-2.462)이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공포의 부재'(β=-.245)와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β=-.157)이 문제해결력 전체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 전체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t=5.968)이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

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β=.333)이 문제해결력 전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강도의 '공포의 부재'와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은 문제해결력 전체 점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아강도와 자기효능감의 문제해결력 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20.6%(F=7.316, p<.001)로 나타났다.

2.2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발견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발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발견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β	t	R ²	F
(상수)	4.736		11.180***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	-.194	-.061	-.715		
정서적 안녕감	-.230	-.111	-1.516		
신체적 안녕감	.124	.059	.774		
자아강도	.315	.159	2.536		
공포의 부재	-.335	-.199	-2.948**	.108	3.403***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	-.365	-.156	-2.308*		
유약함과 부인	.074	.035	.536		
비종교적 태도	-.025	-.012	-.170		
기타	.025	.013	.205		
자기효능감 전체	.124	.077	1.307		

** p<.01, *** p<.001

[표 3]과 같이 자아강도가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발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강도의 하위요인 중 '공포의 부재'(t=-2.948)가 p<.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t=-2.308)이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공포의 부재'(β=-.199)와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β=-.156)이 문제해결력 전체점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발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강도의 '공포의 부재'와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은 문제의 발견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10.8%(F=3.403, p<.001)로 나타났다.

2.3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정의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정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정의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β	t	R ²	F
(상수)	3.557		8.715***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	-.405	-.133	-1.549		
정서적 안녕감	.041	.021	.283		
신체적 안녕감	.240	.120	1.559		
자아강도	.182	.096	1.521	0.92	2.863**
공포의 부재	-.280	-.174	-2.556*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	-.077	-.035	-.509		
유약함과 부인	.194	.097	1.459		
비종교적 태도	-.085	-.042	-.608		
기타	-.089	-.047	-.755		
자기효능감 전체	.326	.212	3.553***		

* p<.05, ** p<.01, *** p<.001

[표 4]에서와 같이 자아강도가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정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강도의 하위요인 중 '공포의 부재'(t=-2.556)가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공포의 부재'(β=-.174)는 문제의 정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정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t=3.553)이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β=.212)이 문제의 정의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강도의 '공포의 부재'는 문제의 정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문제의 정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9.2%(F=2.863, p<.01)로 나타났다.

2.4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해결책 고안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해결책 고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해결책 고안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β	t	R ²	F
(상수)	3.065		7.435***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	.142	.042	.540		
정서적 안녕감	.173	.079	1.171		
신체적 안녕감	.176	.080	1.130		
자아강도	.126	.060	1.043	.242	9.021***
공포의 부재	-.370	-.208	-3.339**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	-.471	-.191	-3.060**		
유약함과 부인	-.200	-.090	-1.492		
비종교적 태도	.079	.035	.563		
기타	-.011	-.005	-.093		
자기효능감 전체	.682	.402	7.370**		

** p<.01, *** p<.001

[표 5]에서와 같이 자아강도가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해결책 고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강도의 하위요인 중 '공포의 부재'(t=-3.339)가 p<.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t=-3.060)이 p<.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공포의 부재'(β=-.208)와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β=-.191)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해결책 고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의 해결

책 고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t=7.370$)이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beta=.402$)이 문제의 해결책 고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강도의 '공포의 부재'와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은 문제의 해결책 고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문제의 해결책 고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24.2%($F=2.863$, $p<.001$)로 나타났다.

2.5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 해결책 실행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 해결책 실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 해결책 실행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β	t	R ²	F
(상수)	2.827		6.886***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	-.985	-.286	-3.749***		
정서적 안녕감	.169	.076	1.147		
신체적 안녕감	.629	.278	4.055***		
자아강도				.281	11.037***
이성적인 자극의 추구하고	.106	.049	.880		
공포의 부재	-.199	-.110	-1.806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	-.303	-.120	-1.975*		
유약함과 부인	-.005	-.002	-.036		
비종교적 태도	.065	.028	.464		
기타	.003	.001	.023		
자기효능감 전체	.775	.446	8.405***		

* $p<.05$, *** $p<.001$

[표 6]과 같이 자아강도가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 해결책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강도의 하위요인 중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t=-3.749$)과 '신체적 안녕감'($t=4.055$)이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t=-1.975$)이 $p<.05$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beta=-.286$)과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 ($\beta=-.120$)이 문제 해결책 실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안녕감'($\beta=.278$)이 문제해결책 실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해결책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 ($t=8.405$)이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beta=.446$)이 문제 해결책 실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강도의 하위요인인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은 문제해결책 실행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신체적 안녕감'과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책 실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28.1%($F=11.037$, $p<.001$)로 나타났다.

2.6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 해결의 검토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해결의 검토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 해결의 검토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B	β	t	R ²	F
(상수)	4.554		9.959***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	-.397	-.114	-1.356		
정서적 안녕감	.173	.076	1.055		
신체적 안녕감	.236	.103	1.364		
자아강도				.333	4.317***
이성적인 자극의 추구하고	.199	.092	1.484		
공포의 부재	-.515	-.280	-4.196***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	-.297	-.116	-1.743		
유약함과 부인	-.068	-.030	-.460		
비종교적 태도	-.051	-.022	-.325		
기타	-.014	-.007	-.108		
자기효능감 전체	.300	.171	2.926**		

*** $p<.001$

[표 7]에서와 같이 자아강도가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 해결의 검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강도의 하위요인 중 '공포의 부재'(t=-4.196)이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공포의 부재'($\beta=-.280$)가 문제 해결의 검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인인 문제해결의 검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t=2.926)이 $p<.01$ 의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beta=.171$)이 문제해결의 검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강도의 하위요인인 '공포의 부재'는 문제해결의 검토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의 검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33.3%($F=4.317$, $p<.001$)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 및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K시와 J지역 유아교육기관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교사의 자아강도,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교사의 자아강도와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아강도와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하위영역에 따른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자아강도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과의 상관관계에서 문제의 정의, 문제해결책 고안, 문제해결책 실행, 문제해결책 검토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과 자아강도와의 상관관계는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 정서적 안녕감, 신체적 안녕감, 이성적인 자극의 추구, 공포의 부재, 기타에서 정적상관이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아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의 상관관계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식보다는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김완일과 문양호(2006)연구와 삶의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박영신·김의철(2001)연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5][8]. 또한, 강영심·황순영(2005)연구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문적 수준이 높았고 학생의 과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따뜻하고 지지적인 교육 환경을 개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1].

둘째, 영유아교사의 자아강도와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아강도의 '공포의 부재'와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은 문제해결력의 하위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정적인 영향이 있다. 또한, 자아강도의 '공포의 부재'와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은 문제해결책 고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책 고안에 정적인 영향이 있다. 자아강도의 하위요인인 '증상의 부재와 강한 현실감', '새로운 자극의 추구하고 안정감'은 문제해결책 실행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신체적 안녕감'과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력의 하위영역 일부에 정적인 영향이 있다. 자아강도의 하위요인인 '공포의 부재'는 '문제해결의 검토'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문제해결의 검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반복된 관련적 과제 경험을 통하여 발달되며, 이 과정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제를 제공해주고 도전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면 자기효능감이 향상 된다는 강은주(2006)연구[2]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력은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 선택 및 조직하여 문제해결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우옥희(2000)연구[15]와 주어진 상황을 탐색하고 이해한 후 체계적 단계를 따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양한 대안들을 파생할 수 있는 능력, 대안에 대해 예측하여 긍정적 결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선택한다는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아강도

와 자기효능감을 인식하고 문제해결력 변인들을 스스로 통제하여 근무환경이 더 좋아지도록 그에 따른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2009)의 연구[7]에서 유아교사 대처방식은 이들의 역할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그 맥락이 부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교사의 자아강도와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결과에서 영유아교사의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아강도와 자기효능감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교사 자신의 심리적인 갈등과 불안은 영유아를 편안하고 따뜻하게 지도하기에 미흡하므로 자아강도,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아성장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K시와 J도 지역의 유아교육기관 교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수의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모든 변인은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변인들 간의 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응답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층면접이나 가능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좀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유아 교사의 심리적인 요소는 각 개인의 특성과 개인차의 수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연구가 아닌 종단적인 연구과정을 모색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영심, 황순영, “특수교사의 교사효능감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제40권, 제1호, pp.305-320, 2005
- [2] 강은주,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연 행동의 관계*, 제주대학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 [3] 김문성, 박성철,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5권, 4호, pp.143-161, 2011.
- [4] 김유정,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사효능감 유형과 관련 변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5] 김완일, 문양호, “사관생도와 대학생의 스트레스 분석 및 자아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의 관계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1권, 제2호, pp.485-501, 2006.
- [6] 권영주, 박영신, 김의철,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 삶의 질 관계 분석,” 한국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2007.
- [7]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내현적 자아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8권, 제3호, pp.627-642, 2009.
- [8] 박영신, 김의철 역, “제7장 한국인의 자기효능감과 행동특성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건강 운동조직에서의 성취문화심리학총서, 서울교육과학사, 제3권, pp.599-618, 2001.
- [9] 박희영, “무용교육이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5권, 제3호, pp.157-166, 2014.
- [10] 손진훈,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의 표준화 연구,” 정신건강연구, 제14권, 1985.
- [11] 신민섭, *자아강도의 강-약과 장의존성, 독립성과의 관계에서 Rorschach 반응상의 1차 과정사고의 표현 및 통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2] 신민철, 이경민, “무용전공 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행동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59권, 2009.

[13] 신행우, 김재환, “Brron의 자아강도 척도의 표준화 연구 - Barron의 자아강도 척도를 이용-,” 신경정신의학, 제26권, 제1호, pp.177-187, 1992.

[14] 심미정, 오효숙, “간호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328-337, 2012.

[15] 우옥희, 문제 중심 학습이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에 따라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6] 유미나, 신나리, “보육교사의 소진과 관련된 직무만족도와 직장 내 사회적지지,” 생애학회지, 제3권, 제2호, pp.73-86, 2013.

[17] 홍영진, 자존감, 스트레스 및 부모의 양육방식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8] D'Zurilla and Goldfried, "Problem solv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78, pp.107-126, 1971.

[19] J. S. Lee, *The effects of process behaviors on problem solving performance on various tes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Illinois, USA. 1978.

[20] G. Hackett and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a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pp.326-339, 1981.

[21] R. H. Harrison and J. Newirth, "The effect of sensory deprivation ego strength on a measure of autistic thinking," J. Pers. Assess, Vol.54, pp.694-703, 1990.

[22] I. J. Martoccio, "Effects of concepts of ability on anxiety, self-efficacy, and learning in train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79,

pp.819-825, 1994.

[23] <http://www.Momsdiary.co.kr>, Parenting Coach 2013년 11월호 자료.

[24] 이해경, “정신건강과 치유환경,” 한국콘텐츠학회지, 제12권, 제4호, pp.34-38, 2014.

[25] 박영석, “고령자의 사회적 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8호, pp.326-335, 2015.

저 자 소 개

김 경 희(Kyung-Hee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복지학과(이학박사)
- 1992년 3월 ~ 현재 :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심리, 상담, 보육

박 수 영(Su-Young Park)

정회원



- 2000년 8월 : 한국방송대학교 유아교육과(교육학사)
- 2013년 8월 :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교육학 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아동상담관련)(박사 재학중)

<관심분야> : 아동심리, 상담, 보육